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 요약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협동조합의 화두

1.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
2.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3. 어떻게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하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 다른 결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희생이 아니라 배려 혹은 양보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보살핌(이타심 혹은 측은지심) - 당신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나? 신경 쓸 여유가 있나?

어떻게 협동하는가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협동을 통한 합의이다.

협동이란 뭘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자랑스럽더라도 그건 어떤 일부분이나 기능을 잘 수행하거나 마음이 평화로워서 그럴 수 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이 더 낫거나 아님 그냥 다른 것 뿐이다. 이런 존재들이 함께 더 재밌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는 분업 등의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협업, 협동해오고 있다.

협동의 원리

1. 호혜성 - 서로가 좋다
2. 구조적 협동 - 상호적 협동 / 순환적 협동 / 순차적 협동

협동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불완전한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시작한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혼자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치않다면 협동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함께 일하려는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 내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까?

협동의 호혜성. 이건 서로가 좋다는 의미란다. 거래 조건이 맞는다는 의미로 협동도 어느 한 쪽에 그 편익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서로 만족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어느 한쪽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 협동이라는 계약은 바로 해지되거나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합의없이 그 계약이 지속된다면 협동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거다.

협동조합, 협동의 그릇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다.

(자본 + 노동 + 생각) x 협동 =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원칙

원칙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비법이나 매뉴얼, 법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아도 피해나 징벌이 없다.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조직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곧 협동의 약속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자발성에 의한 결사가 중요하다.

스스로 판단하여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극적일 수 있고 경영의 위기를 초래한다.

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그 어떤 조건으로 차별받아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면 안된다.

조합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 '끼리끼리'의 폐쇄적 조직은 아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 운영의 알파, 오메가는 조합원이다.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의, 대리하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가입 시 출자금을 내고 유지, 발전을 위해 자원 조달에 참여한다.

4. 자율과 독립

스스로 자신의 규칙을 만든다.

조합 외부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압력과 간섭을 행사하지 않는다.

5. 교육, 훈련, 홍보(정보제공)

조합원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조합은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협동조합 간 협동

하나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몸을 던져야 한다.

보다 넓은 협동조합의 바다에서 활동해야 고사되지 않는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참여의식)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지역의 주인이듯, 그들이 만든 조직 또한 지역의 주민기업이다.

우리사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

협동조합의 자본과 소유

1. 자본

출자금은 입장료가 아니다! 이용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다!
함께 살아갈 집을 짓기 위해 함께 모으는 비용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은 전체의 일부이다.
무엇 때문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함께 결정을 할 때 돈을 낼 마음을 생길 것이다.

출자가 자본의 협동이고 그 협동은 생각의 협동에 기반하는데 조합 활동은 노동의 협동이기도 하다.

한 푼이 아쉬운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니 돈으로 출자하지 않고 노동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과 시간이 돈이지 않은가?

- 출자금
- 조합비
- 적립금

자본의 협동 - 출자, 증자, 조합비 납부

2. 소유권

- 조합원의 출자금: 사적 소유 - 탈퇴시 환급
- 적립금(운영): 조합원의 집합적 소유 - 비분할, 양도불가
- 적립금(청산): 집합적 사회적 소유 - 국가나 유사한 사업에 귀속
- 적립금(2차조직): 사회적 소유 - 비개인, 비분할, 양도불가

출자금은 가입과 탈퇴에 따라 철저히 조합원 개인의 사적 소유이다.
적립금은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 이익으로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소유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합의나 합의한 원칙을 근거로 사용한다.

협동조합 구조

1. 총회

모든 조합원의 총합. 속의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여러 사람의 협동이 더 나은 결정과 운영을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2. 이사회

총회 즉 모든 조합원이 일부 의결권을 부여한 이사들의 모임으로 평상시의 운영책임단위이다.

협동조합의 업무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이사회는 정치체도로 치면 국회에 비유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지역, 특정 사업 등의 분야에 조합원들을 대표한다.

이사회는 투명한 정보 제공, 보고의 의무가 있다.

3. 대의원제도

이사회가 있는데 대의원제도는 또 뭘까? - 대의원총회, 평의회로 볼 수도 있겠다.

아 조합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하기 힘들 때 상하원제처럼... 예를 들면 하원의원이 대의원이고 그 중에서 상원의원이 나오면 이걸로 의사회를 구성할 수도....
우리사협에는 일단 해당사항이 없는듯...

참고: <http://www.mindlle.org/board/view/?category=notice&code=411&page=9>

자본, 노동, 생각의 협동 중에 가장 중요한게 생각의 협동이다.

조합원이 대화 없이 각자 자기 관심분야의 일만하면 조합 전체에 대한 인식과 주인의식이 떨어지고 협동은 힘들어진다.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가입해서 출자하고, 물품을 이용하고, 때로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총회에 참석해서 손들고 투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온전한 주인노릇을 하려면 우선 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이 협동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실천은 조합원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협동은 어렵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잊지말자. 협동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4. 조합원모임

조합을 만들면 처음에는 아는 사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

조합원은 서로 동료, 전우이자 친구이다. 당신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회의 때 만나 몇 시간 토론한다고 금방 생각이 모아지지 않는다. 평소에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된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사귀는 과정이다.

5. 사무국?